



연휴 길어서?...추석 열차표 예매 한산 추석명절 호남선 열차표 예매가 시작된 30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광주승정역 예매창구에서 시민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다음달 29일부터 10월9일까지 이어지는 긴 추석연휴에 예매 행렬이 예년에 비해 한가했다. /최현배기자 choi@

‘SOC 예산 축소’ 광주·전남 직격탄

도로·항만·철도·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상대적으로 열악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남해안철도 등 사업 차질 불가피

문재인 정부에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대폭 감축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주와 전남도의 SOC 관련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당장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거나 기존 정부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들의 추진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속 사업의 경우도 정부의 '짚길' 예산 반영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SOC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역대 정권의 불균형 투자로 인해 기반시설 측면에서 영남권이나 충청권보다 크게 미흡하다. 이 가운데 고속철도와 공항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도로 포장률은 79.2%에 그치고 있다. 전국 평균 84.8%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정부 예산안 중 광주 시가 요청한 교통분야 예산은 23.5%만 반영됐고,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SOC 예산 비중이 높은 전남은 78%만 반영됐다. 전남의 주요 SOC 사업의 경우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건설 사업의 경우 57%가 정부예산에 반영됐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건의액(3000억원)의 15%만이 반영됐을 뿐이다. 지역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의 경우 무안공항 경우 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건의액(3000억원)의 5%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과거 정부에서 주요 산업 및 기반시설이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구축되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광주·전남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또 다시 SOC 예산 규모 축소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 연계 시설 미흡 등으로 신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마저 낮아지면서 광주·전남의 기반시설 확충은 더욱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미래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해 편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으로, 보통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성을 강조하는 B/C 분석을 사회기반시설에까지 적용하면서 인구가 적고, 산업 간 연계 네트워크가 구

축되지 못한 광주·전남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신규 투자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는 지역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다양한 자연·문화·역사·음식 등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파악해 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지원이 선행되는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 기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경수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은 "각 지역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발전을 경쟁해야하며, 정부부처는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정권 지지기반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정부의 재정 배분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 각 지역이 다양한 성장동력을 갖고 국가 전체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건설업계 물량 줄어 '비상'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면서 광주·전남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적인 SOC 예산 감축 기조에 맞춰 광주·전남지역 SOC 예산 관련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건설물량 수주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완도고속도로와 광주순환고속도로,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건설 등 지역에서 굵직한 사업 예산이 요구액보다 대폭 삭감되면서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장비·자재 공급 업체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2018년 이후에도 복지, 교육, 국방 예산을 늘리고 SOC 예산을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건설업계 먹구름'이 지속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경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은 "핵심단급"으로 평가받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업체들이 물량발주, 분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건설업계 전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목 전남지회 회장은 "광주·전남은 지역의 열악한 경제 특성상 건설업은 공공 투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광주·전남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지역건설업계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北, 태평양에 미사일 추가 발사 예고

유엔 안보리, 규탄 의장성명
문대통령, 아베와 공조 통화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으로 29일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에 이어 태평양을 향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감행할 것을 사실상 예고했다.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화성-12형 발사를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이번 탄도로켓 발사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 걸음이고 광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면서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 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군사적 도발의 무대를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일본뿐 아니라 광도를 포함한 태평양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실제 유사 도발이 이뤄질 경우 미국과 일본의 강경 대응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전력을 전개하는 일본과 광 미군기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29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시작해 25분간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위기에 대해 유례없는 공조를 이루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입법·예산 '100일 전쟁'

정기국회 9월 1일 개최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시작되면서 여야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입법과 예산 전쟁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3면> 여당이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 민생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독선을 견제하고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개혁 입법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탈원전,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언론 공

공성 강화 등을 이룬 정기국회 10대 핵심과제로 추진 상태다. 반면 야당은 안보, 안전, 진적폐, 포퓰리즘 등을 쟁점화하면서 여권을 몰아붙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각 쟁점에 대한 개별 야당의 입장이 달라 일사불란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산전쟁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429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슈퍼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현금살포형, 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다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재정·재원 조달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삭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그림전시 - 김상연 중국 낙양 ▶16면
- 시간속을 걷다 - 영전백화점 ▶18면
- 무등기 사회인 야구 출전팀 ▶20면

수시모집 ▶ 9.11(월)~15(금)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확보 062) 605-1114

제5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명품 강연문화를 선도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흥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C 중 한명이다. 1979년 라디오 프로그램 '가요행진' MC로 데뷔한 뒤 활발한 방송활동을 펼치며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시트콤과 코미디 프로그램을 넘나들면서 시대를 풍미했던 방송인.



박정자

한국 연극계 거장, 국내 연극 무대를 이끌어온 배우다. 1962년 연극 '페드라'로 데뷔해 정상급 여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영영이별 영이별', '제 여자 이야기' 등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영화 '마스터' 등 스크린 '박수건달'에서도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정철

국가대표 카피라이터. 대기업부터 물산과 아이젯 등 영화까지 25년 광고 카피를 쓰고 있다. 정치광고에 따른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라 '바람이 다르다'는 카피를 쓴 문재인대통령의 카피라이터.



권은진

케이블채널 온스타일 '도전 수퍼모델'에 권다민이라는 이름으로 출연. 17cm라는 모델치고는 작은 신장에도 패션쇼와 광고모델까지 섭렵하며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슈퍼모델.



고규홍

나무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한국의 대표적 생태학자다. 전립포수목원에서 20여년 세월 나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몰랐던 나무의 이야기,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전하고 있다.



이두현

'수요일엔 빨간 정미물', '풍선', '새벽까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던 다섯손가락의 리더로써, 이후 유학을 떠난 뒤 현재는 대학과 기업 등에서 왕성한 강연을 펼치고 있다.



김흥신

정편소설 '인간시장'을 펴낸 소설가. 대한민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다. 제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소설을 넘어 수필, 시집, 콩트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힌다.



정부희

프랑스에 '파브르 곤충기'가 있다면 한국에는 '정부희 곤충기'가 있다. 사비를 털어 개인 곤충연구소를 마련하는 등 대중들에게 쉽게 곤충을 소개하고 있는 곤충학자다.



박재등

근대 민화가 보여준 풍자 정신을 우리 시대에 계승한 민화가다. 국내 민화계의 거장으로 80년대 후반 민주화 세대의 진보의식을 대변한 민화 운동가이자 시사민화가.